

# 음주운전 '스쿨존 초등생 사망' 징역 20년 구형

### 검찰 "유족 엄벌 탄원" 징역 20년 구형 유족 "유품 하나도 못 치워... 절망·고통" 운전자 "정말 죄송하다" 눈물 흘리기도

술에 취해 운전 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유족은 법정에서 직접 출석해 엄벌을 탄원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중한 사안에 대한 일반 예방적 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 구형에 앞서 피해자 B군의 부친 C씨가 법정에서 A씨의 엄벌을 탄원했다.

C씨는 "저희 가족은 그 날 이후로 다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절망과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아빠' 하고 외치며 들어올 것 같아 아이의 유품을 어느 하나도 치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법정에서 뺑소니 혐의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저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가 중한 범죄임을 판시해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주변에 신고해달라고 말하는 것 외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죄책에 맞는 벌을 내려달라"고 최후변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정말 죄송하다"며 "제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아이가 다시 부모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매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발언을 마친 뒤 고개를 숙이며 흐느끼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A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C씨는 이날 공판기일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스쿨존 내에 보도, 안전보호시설 등을 만드는 법을 저희가 입안했다"며 "(이런 사고가) 절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4시57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당시 집 주차장에서부터 약 930m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했고,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좌회전하던 중 B군을 충격한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은 A씨가 B군을 충격한 순간 차량이 흔들렸고, A씨가 사이드미러 등을 통해 사고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멈추지 않고 차량을 몰아 B군이 쓰러진 채 방치됐던 것이라고 보고 있다.

A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도주 의사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따져보기 위해 지난달 24일 사고 현장에서 검증기일을 진행하기도 했다.



**놀이터로 변신한 골프장** 안양컨트리클럽 시민 무료개방 행사가 열린 2일 경기도 군포시 안양컨트리클럽에서 어린이들이 잔디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검찰청 와서 기자만 만나고 간 송영길...檢 "압수물 분석부터"

### 지나주 자택 압수수색...압수물도 분석해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조사를 받겠다며 서울중앙지검을 찾았지만, 검찰이 추후 소환을 통보하겠다고 해 조사는 불발됐다.

송 전 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되지 않은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송 전 대표를 만나주지 않았다.

검찰은 수차례 '수사 계획'에 따라 필요한 때에 송 전 대표에게 출석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을 통해 소환 요청 후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 되고, 이날 출석한다고 해서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우선 송 전 대표를 조사할 때가 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2021년 5월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송 전 대표 캠프 내 유관석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등이 현역의원 10~20명과 지역본부장 등 수십명에게 돈 봉투를 살포했다는 것이다.

송 전 대표는 당시 캠프의 최종 책임자이자 돈 봉투 살포가 있었다면 그 수혜를 입은 인물이다. 통상 수사 절차를 감안하면 검찰이 송 전 대표를 수사 막바지에 소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이성만 민주당 의원이 이 전 부총장과 통화하면서 "내가 송 있을 때도 같이 얘기했다"고 하는 대화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는 '돈'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시기는 2021년 3월 말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감사는 2021년 4월10일께 이 전 부총장과 통화하며 "영길이가 형이 뭐 어디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많이 처리를 했다"고 말했고, 이 녹음 파일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돈 봉투를 직접 의원들에게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이 확보한 녹음 파일에는 윤 의원이 직접 "내가 회관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처리 하거든"이라고 말하는 대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이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자 정무조정실장을 맡았던 박모 씨에게 "윤 전달했음"이라는 메시지를 텔레그램으로 보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로서는 송 전 대표 조사 전 윤 의원을 불러 자금을 조성하고 살포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이 의원에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 검찰 출입을 거부 당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 있을 때도 같이 얘기했다'는 발언의 의미는 무엇인지, 박씨를 불러 이 전 부총장의 메시지 의미와 송 전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윤·이 의원과 박씨는 현재까지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씨에 대해서는 소환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 부르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9일 송 전 대표의 자택 2곳을 압수수색했다. 송 전 대표가 세운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1일에는 송 전 대표 캠프 지역본부장 등 캠프 관계자들을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 주말에도 압수물 분석 등 작업을 진행했지만, 물리적으로 휴일이 지난 이날 송 전 대표를 바로 조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송 전 대표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다음날 제출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역시 포렌식 및 분석 작업을 거치려면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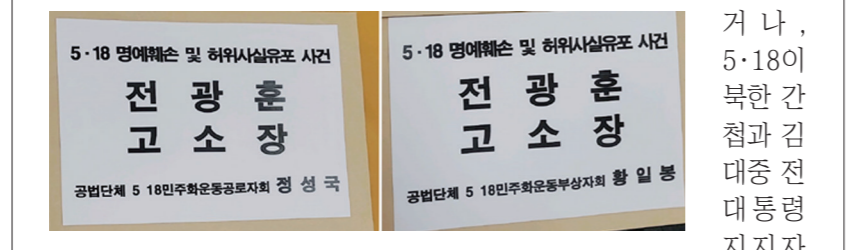
송 전 대표는 조사 불발을 비판하며 수사를 신속하게 종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날 조사 불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 전 부총장 개인비리 사건에서 별건수사로, 또 송영길 주변에 대한 이중 별건수사를 하는 탈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변사람들에 대한 비검한 협박, 별건수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주변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정치적인 발언이며 모순적인 주장이 있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 5·18 단체, 전광훈 목사 고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공로자회가 5·18 왜곡,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전광훈 사법제일교회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부상자회 등은 2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5·18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전 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 목사는 지난달 27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자유마음을 위한 전국순회 국민대회'를 열어 연설 도중 5·18에 대한 소행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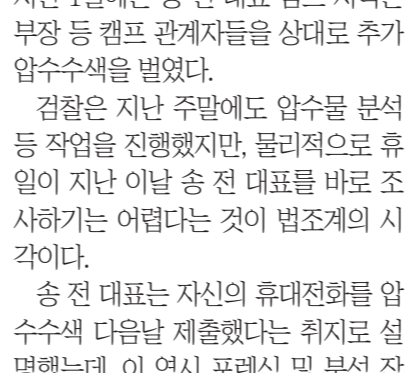
미국 정보기관인 CIA의 비밀 보고서에서 밝혀졌으며 5·18 당시 계엄군의 발포 명령이 없었다

거나, 5·18이 북한 간첩과 김대중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

또 "광주시민들이 계엄군이 운영하는 헬리콥터를 향해 총탄을 퍼부었다"며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헬기에서 총을 쏘았다는 사실을 부정했다.

"김정은이 전라도 국민들을 사상의 포로로 붙잡았다", "광주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5·18) 연금" 등의 발언도 나왔다.

부상자회 등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현재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국민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 대통합과 대중 정신"이라며 "허무맹랑한 가짜 뉴스로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왜곡,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람은 전 목사가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했다.



이슬비기자



**강진소방, 어린이 임야화재 드론감시단 운영**  
강진소방서(서장 최기정)는 지난 3일 어린이 임야화재 드론감시단(D.P☆)을 발대하여 봄철(3월~5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화순소방, 화재예방 안전사다리 운영**  
화순소방서(서장 이중희)는 최근 발대식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군민의 안전을 위해 화재예방 안전사다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광주 동부소방,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실시**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송민영)는 2일 오전 동구 다목적체육관 부설축구장에서 2023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평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광양경찰, 긴급현장상황반 '비상대비 역량강화' 교육**  
광양경찰서(서장 정재봉)는 지난 2일 테러-재난 사태로부터 안전한 광양을 만들기 위한 광양경찰서 비상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했다.  
광양=김현근기자



**무안경찰, 녹색어머니 연합회 발대식 개최**  
무안경찰서(서장 김정원)는 지난 4월 29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녹색어머니 회원 등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녹색어머니 연합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여수해경, 현월중 200장 백혈병소아암협회에 기부**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지난 4월 직원들의 단체 현월과 자발적인 기부로 모은 현월중 200매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전남광주지부)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